

## II. 부분별 2000년 전망

### 1. 세계전자산업 전망 / 손종영 부사장(데이타퀘스트)

**최** 근 3년 동안 지루한 침체에 빠졌던 세계 전자산업계의 맥박이 다시 빨라지고 있다.

시장조사 회사인 가트너그룹이 최근 내놓은 2000년 세계 전자산업 기상도는 이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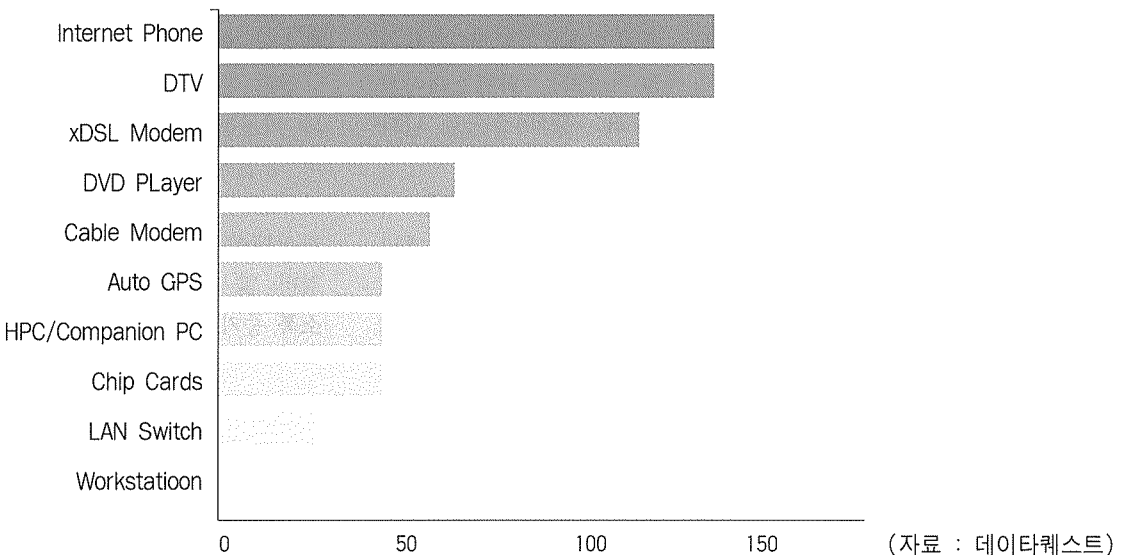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아·태 지역의 전자산업은 벌써 IMF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난 데 이어 오는 2002년부터 다시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전자산업도 회복하기는 하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그

러나 90년대 들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의 영광은 조금씩 퇴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에는 또 통계자료를 통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중에 세계 전자산업의 기

<2002년까지 초고속성장 가능한 10대 전자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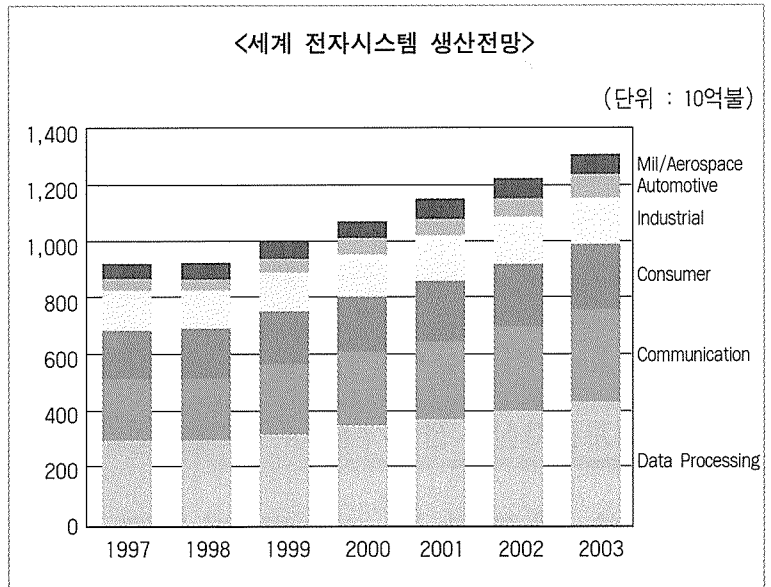
2000년도 전자정보산업 전망

상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는 전자산업 성장률. 90년대 들어 계속 6~12%대를 유지했던 성장률이 지난해 IMF 등의 영향으로 1%로 추락했다가 올해 다시 예년 수준(8%)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 세계 전자제품 생산규모도 올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0년 1조7000억달러, 2002년 1조2100억달러로 각각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오는 2000년 전자산업 분야별 구성비는 정보처리(컴퓨터) 시장규모가 3424억달러(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통신(2684억달러·25%), 가정용(1889억달러·18%), 산업용(1503억달러·14%), 항공·우주(612억달러·6%), 자동차(590억달러·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률에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이 12.8%를 기록해 다른 부문을 압도했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처리(8.4%), 통신(8.0%) 등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비해 가정용과 산업용 전자제품의 성장률은 각각 4.8%와



4.2%에 그쳐 대조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2000년 정보처리 시장을 제품별로 구분하면 PC가 1400억달러(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모니터와 디스크드라이버(각 300억달러), 입·출력장치, 전용 시스템(각 200억달러), 메인프레임, 중형 컴퓨터(각 150억달러), 워크스테이션(100억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계 PC 시장규모는 지난 97년 8000만대에서 매년 14%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다시 판매가격을 기준으

로 하면 1000~1500달러대의 중·저가 PC의 판매비중이 올해 약 40%에서 오는 2002년 70%까지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반면 1500~2000달러와 2000~2500달러 제품의 판매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20%와 10%에서 각각 10%와 5%로 절반 정도씩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통신장비 분야는 셀룰러와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장비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반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일반 유선통신장비 및 서비스 시장은 앞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2. 가전산업 전망/이경기 전문(LG전자)

2000년 세계 경제는 균형있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후진국의 경우 기존 가전기기 수요가 소폭 증가하고 선진국은 디지털 신가전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중국을 비롯해 그동안 선진국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던 개발 도상국들이 세계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전기기의 판매가격이 TV·VCR 등 AV가전의 경우 10% 이상 하락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백색가전제품도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백색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은 선진업체와 전략적 제휴가 지속될 것이며 디지털 가전을 선도하기 위한 브랜드 파워 구축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전자거래 시대가 도래, 가전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도 일대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글로벌 무한경쟁과 디지털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2000년은 국내 가전산업에 위기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강자가 출현하지

않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리더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국내 가전시장은 내년에도 IMF이전 수요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산 가전제품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컬러TV의 경우 기존 제품의 가격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나 평면TV·디지털TV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제품의 시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VCR은 전세계적인 판매가 하락과 엔고로 인한 핵심부품 및 원자재의 수급상 애로가 예상되나 OEM생산 증가로 신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냉장고는 물류비용 상승과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절상 등의 용인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어컨은 다른 가전제품보다 경기 상황에 민감하고 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전세계적인 경기회복과 최근의 이상고온 현

상에 힘입어 전반적인 호조가 예상된다.

세탁기는 세탁력이 향상되고 국내 업체의 주력제품인 세탁판 방식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고 드립세탁기 수출도 본격화돼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자레인지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의 현지화, 선진국 업체와의 장기간 OEM체결, 유럽연합(EU) 반덤핑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가 예상돼 신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품목별 수요를 전망해 보면 컬러TV의 경우 올해보다 4% 늘어난 148만대, VCR은 5% 신장된 67만8000대에 이를 전망이다.

또 오디오와 냉장고도 올해보다 각각 2%, 9% 늘어난 211만 9000대, 121만8000대를 기록하고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역시 각각 9%씩 늘어 108만대, 73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룸에어컨과 가스오븐레인은 각각 10%, 11% 증가해 32만대, 20만대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12월 3일부터 일부 가전제품

# 2000년도 전자정보산업 전망

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도 가전산업 매출이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에 따라 일본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입선다변화 폐지로 지난 7월 이후 수입실적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입제품이 내수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업체들의 진출이 유통채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업체들의 경우 자체 유통망을 갖추지 못해 양판점, 할인점 등 혼매점을 주로 공략하게 될 것이며 향후 혼매점에서 국내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가전시장의 제품별 수요전망>

(천대)

제품명	1999년	2000년	신장률
CTV	1,420	1,480	4%
VCR	645	678	5%
Audio*	2,082	2,119	2%
냉장고	1,120	1,218	9%
세탁기	990	1,080	9%
전자레인지	670	730	9%
룸 에어컨	290	320	10%
패키지 에어컨	320	345	8%
청소기	900	980	9%
가스오븐레인지	180	200	11%
JAR	1,720	1,800	5%

자료 : LG 전자

\*CST, Hi-Fi

## <세계 가전시장의 제품별 수요전망>

(천대)

제품명	1999년	2000년	신장률	
TV	119,000	125,000	5%	
차세대TV*1	Flat TV	5,000	12,000	140%
	CTV	97,000	95,000	△2%
	TVCR	6,700	6,700	0%
	VCR	51,800	52,100	6%
DVD Player	6,500	12,900	98%	
헤드폰 스테레오카셋*	13,000	13,700	5%	
냉장고	62,000	64,000	3%	
세탁기	52,000	54,000	4%	
전자레인지	33,000	34,000	3%	
에어컨*	37,000	39,000	5%	

자료 : LG 전자

\* 1 Projection TV, LCD-Projector, D-TV \* 2 MP3는 '99:720천대, 0500:2,040천대(183신장)

\* 3 20HP이하

### <특소세 폐지의 매출 영향>

#### □ 제품별 가격탄력도 분석

제 품		보급률	탄력도(금액기준)	가중치
C-TV	일반	100.0%	0.3	30.0%
	대형	5.0%	0.7	2.0%
VCR		90.0%	0.4	9.3%
냉장고		100.0%	0.35	30.8%
세탁기		97.0%	0.35	23.4%
전자레인지		53.0%	0.4	4.5%
계			0.35	100.0%

→ 특소세 폐지로  
12% 가격인하시  
평균 4.2%의 매  
출증가가 예상됨

###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영향>

#### 일본업체 동향

- SONY
  - 대리점과 SVC센터 지속확대 추진 중임
  - 주요취급제품은 평면TV, PJT TV, VCR, 캠코더임
- 마쓰시타
  - 국내업체와 공식 Agent계약을 체결하여 TV, DVD, 캠코더 공급추진
- 히다찌
  - A/V와 캠코더의 2개 총판체제로 운영중이며, '00년부터는 소모품, 생활·주방용품도 본격 취급

#### 내수판매 영향

- 수입 실적
  - 99. 7월 이후 수입실적이 상반기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내수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 유통채널에 미치는 영향
  - 일본업체들의 경우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해 양판점, 할인점 등 혼매점 공략을 추진 중이며 향후 혼매점에서 국내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3. 컴퓨터산업 전망/김남수 부장(삼보컴퓨터)

**올**해 최대 호황기를 맞은 국내 PC산업은 2000년에도 경기회복과 인터넷 확산 등에 힘입어 올해 200만대(추정치)보다 18% 정도 성장한 235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PC시장은 이와 함께 다양한 시장 변동요인이 등장하면서 큰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국내 PC시장의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할 주제는 인터넷 기반의 확산, 저가PC시장 기반확대, 이동 컴퓨팅의 급부상, 프리PC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등장, PC업계의 경쟁구도 변화, PC기술 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 기반의 확산은 PC시장 기반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월평균 인터넷 이용자는 500만명 수준이며 내년에는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PC 제조업체들이 대규모 수출을 추진하면서 규모의 경계를 실현, 인터넷 PC를 기반으로 데스크톱 컴퓨터의 경우 60만~70만원대 제품이 표준규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이동컴퓨팅은 기존 이동컴퓨팅시장을 선도해온 HPC와 함께 국내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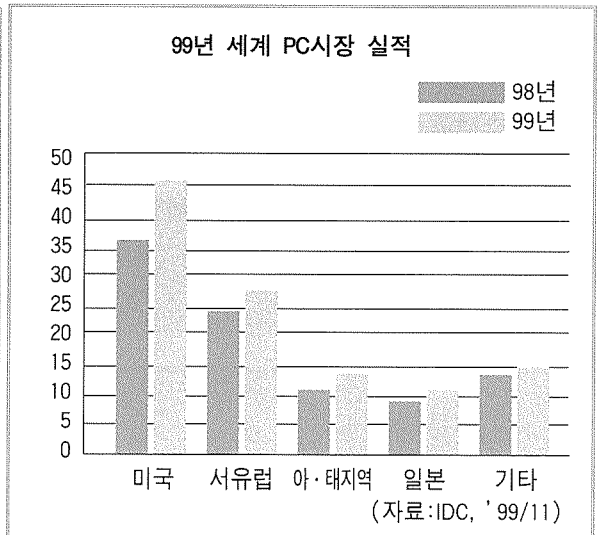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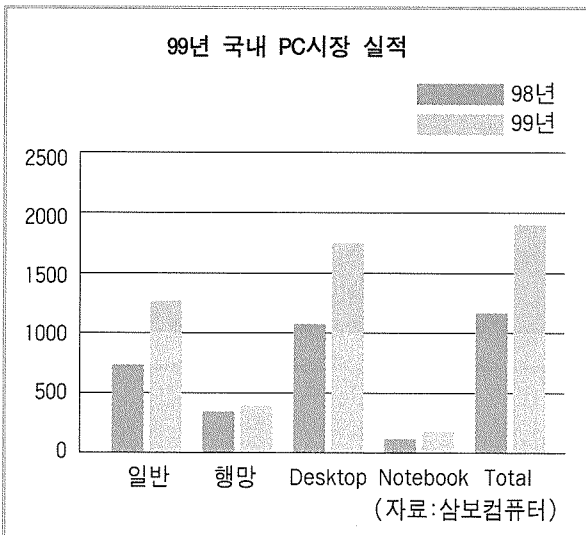
기반을 크게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국내 PC업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프리PC 열풍과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제품판매 등 새로운 개념의 마케팅 기법도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제품판매는 그동안 국내 PC업계가 고집해온 대리점망의 단점을 극복할 새로운 유통채널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통신과 컴퓨터의 통합추세에 따라 관련업체간 확산될 전망이다.

국내 PC업계의 경쟁구도도 내년을 기점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PC시장은 대기업과 중견제조업체, 상가와 조립



<2000년 한국 PC 시장 전망>

(대/%)

구 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수 량	비 중	수 량	비 중	수 량	비 중	수 량	비 중
DESKTOP	일반 (성장률)	1,232,000	64.8%	733,000	59.6%	1,310,000	65.5%	1,570,000	66.2%
				-40.5%		78.7%		19.8%	
	행망 (성장률)	492,000	25.9%	380,000	30.9%	460,000	23.0%	510,000	21.5%
				-22.8%		21.1%		10.9%	
NOTEBOOK	일반 (성장률)	164,000	8.6%	106,000	8.6%	215,000	10.8%	272,000	11.5%
				-35.4%		102.8%		26.5%	
	행망 (성장률)	12,000	0.6%	11,000	0.9%	15,000	0.8%	18,000	0.8%
				-8.3%		36.42		0.0%	
PC TOTAL (상장률)		1,900,000	100.0%	1,230,000	100.0%	2,000,000	100.0%	2,370,000	100.0%
				-35.3%		62.6%		18.5%	

PC업체들이 각각의 축을 이루는 삼각구도를 형성했으나 내년에는 상가업체와 중견 PC업체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대기업간의 경쟁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인터넷PC사업자를 중심으로 일부 경쟁력 있는 조립PC업체나 중견 PC업체가 대기업과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비중은 올해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PC시장의 이같은 변화구도에 PC 자체도 성능개선과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앙처리장치(CPU) 부문에서는 펜티엄Ⅲ급이 주력으로 부상하고 CPU 속도도 1GHz까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PC메모리 부문에서는 현재

32MB 중심에서 64MB와 128MB로 용량이 크게 확대되며 버스 부문에서도 USB포트가 보편화된다.

PC의 운용체계(OS)는 윈도 98에서 윈도2000으로 전환되고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리눅스가 시장기반을 크게 넓힐 것으로 보인다.

4. 통신산업 전망/김용민 상무(삼성전자)

2000년 통신시장을 규정할 핵심주제는 디지털 통합, 인터넷 혁명, 이동멀티미디어, 세계시장 개방 등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디지털통합에서는 모든 콘텐츠 디지털화의 급진전을 빼놓을 수 없다. 또 통신·컴퓨터·엔터테인먼트의 장비화 서비스 융합·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전자정보통신기기의 분류체계와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다.

21세기의 화두라고도 할 인터넷혁명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이용자의 급증은 물론 전자상거래 등 신사업의 출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통신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제는 이동멀티미디어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움직이는 통신개념은 인간생활 전반을 뒤흔들어놓을 혁명적 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선데이터서비스 요구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시장 개방을 들 수 있다.

전세계 표준기술이 마련돼 각국에서 통용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공개표준채택에 대한 압력도 거세질 것이다. 전통적 절대강자

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전방위 경쟁, M&A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 국내 통신시장의 미래상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내시장을 전망하면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두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인터넷PC 보급확대와 본격적인 1인 1PC시대 도래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사업의 확대 가능성, 그리고 이동전화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및 무선인터넷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위협요인으로는 국내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경쟁업체 등장과 승자승 원칙에 따른 강자들간의 제휴연계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은 국내 통신업계나 정부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득과 실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통신시장 규모는 2003년 34조7000원으로 12.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기간통신의 경우 완만한 성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2000년과 2001년에 17조8000억 원선에서 평행선을 걷다가 2003

년엔 22조7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커지면서 8.1%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 별정통신과 부가통신의 경우 각각 22.3%와 33.6%의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별정통신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2003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부가통신은 4조7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통신서비스별 가입자수 증가세는 고속접속서비스 분야 위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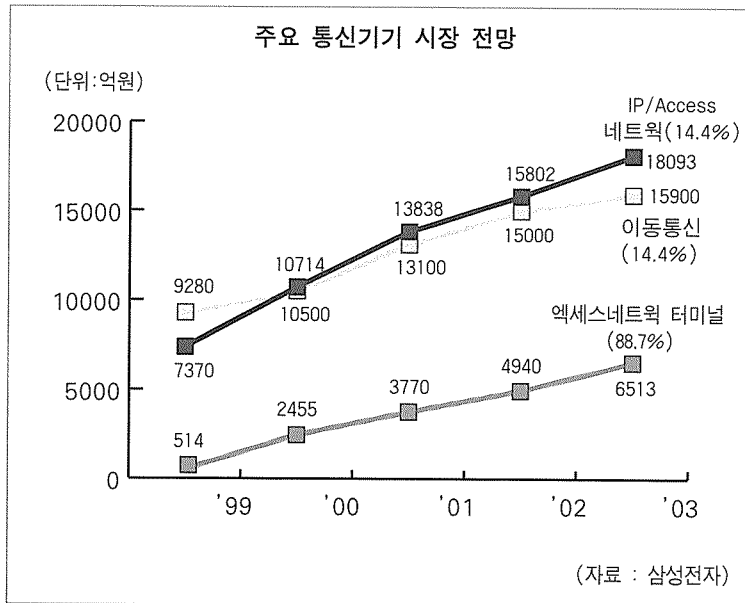
이 분야 가입자 증가율은 2003년까지 63.5%를 나타내면서 같은 기간 시내전화의 0.1%, 이동전화의 5.8%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는 자본만 있다고 해서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식의 자원화가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또한 막무가내식 경쟁으로는 결코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없는 시대다.

경쟁과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서있지 않으면 경쟁의 무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통신서비스 시장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98	'99	'00	'01	'02	'03	성장률	
기간통신	유선통신	60,901	62,328	65,151	67,837	69,801	70,651	2.6%
	무선통신	60,644	97,379	113,146	131,040	144,954	156,623	11.2%
	소계	121,544	159,707	178,297	178,297	214,755	227,273	8.1%
별정통신	500	792	1,618	1,857	1,961	2,081	22.3%	
부가통신	10,993	14,723	20,166	27,146	35,264	47,220	33.6%	
방 송	26,915	35,035	43,296	55,717	63,073	70,919	17.4%	
합 계	159,952	210,261	243,377	283,596	315,053	347,493	12.5%	

자료: KISDI 보고서 ('99. 9)

5. 전자부품산업 전망/박영원 이사(삼성전기)

**디**지탈 시대로 지칭되는 2000년대 세계 전자부품 시장은 매년 10%이상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해부터 시장이 형성된 MP3플레이어를 비롯해 DVD 관련 기기들이 대량 보급되기 시작하고 차세대 이동전화기로 부각되고 있는 IMT2000단말기 및 개인휴대단말기(PDA)등 고속인터넷 단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체상태를 보였던 가전기기 시장의 경우 디지털방송 시대가 개막 되는 것에 힘입어 디지털TV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들 전자제품에 장착되는 각종 전자부품의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올해 15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자부품 시장 규모는 내년에 1680억달러로 약 7% 성장하고 그 이후로는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인터넷 및 이동통신 단말기에 장착되는 액정표시장치(LCD)·표면탄성파(SAW)필터를 비롯해 전압제어 발진기(VCO)·온도보상형발진기(TCXO)·빌드업 기판·반도

체패키지(CSP)기판·무선 안테나·센서 등 RF부품 수요는 20~30%대의 고성장을 구가할 전망이다.

또 적층세라믹칩콘덴서(MLCC)·칩저항기·소형 정밀모터·전원공급장치(SMPS)등은 10~20% 성장세를 지속하고 전해콘덴서·편향코일(DY)·수평출력트랜스(FBT)·튜너·스피커 등 일반 범용 전자부품류는 한자릿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술 측면에서 살펴보면 LCD의 경우 PDA용 소형품과 노트북 및 PC용 대형품으로 이원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PDA용은 풀킬러 4인치급이 출시되고 PC용 대형기종은 현재 15인치급에서 18.1인치급으로 주력기종이 옮겨갈 전망이다. 이 LCD 전세계 시장 규모는 내년에 1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약 226억달러의 세계 시장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다층인쇄회로기판(MLB)은 한국·일본·대만 3국이 시장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빌드업기판과 반도체패키지 기판이 주력모델로 부상할 전망이다.

소형화·대용량화·저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MLCC의 경

우 현재 1005규격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2000년대에는 0603규격 제품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니켈·구리 전극을 채택한 10~100 $\mu$ F급 기종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대의 칩화 비율을 보이고 있는 칩인덕터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그 비율이 80%로 높아지고 칩저항기는 0.024~10 $\Omega$  정도의 저저항에 0603규격의 제품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현재 공급이 달리고 있는 SAW필터의 수급 불안은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복합·다중형 기종이 선보일 전망이며 VCO·TCXO·루프형 발진기(PILL)모듈 등이 통합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전자부품은 인터넷 환경 하에서 Digital Networking 기술로 집약될 것이며 유망 신규 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부품수요 대폭발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다수의 세계 Top제품을 확보한 선도기업과 특정분야 Top인 「틈새기업」이 시장 이익을 양분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 지배력이 강한 전략부품을 확보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일류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다.

<2000년 세계시장 성장률( '99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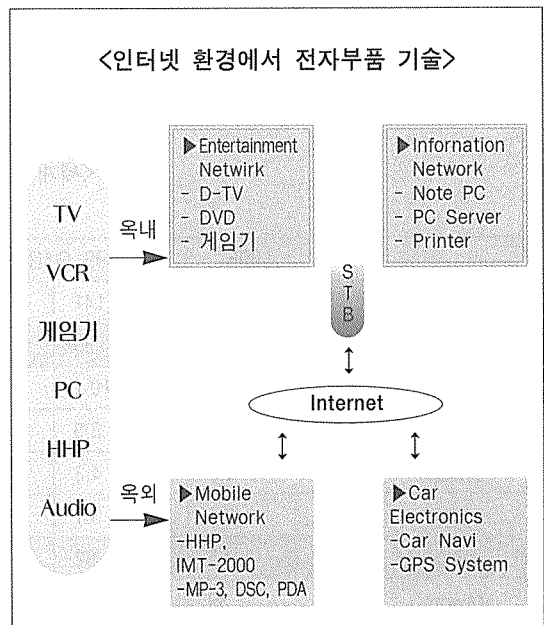
(수량기준, 다층기판/LCD는 금액)

20% 이상	· 다층기판(20) · 칩인덕터(20)	· VCO(25) · TCXO(25) · 유전체필터(20)	· D-SVR(33) · LCD(30)
10~19%	· MLCC(16) · 칩저항(13) · 정밀모터(10)	· SAW필터(15)	· Keyboard(17) · SMPS(15)
9% 이하	· 전해콘덴서(5)		· TU(8) · DY, FBT(7) · Speaker(6)
범용부품	이동통신부품	정보가전부품	

<전자부품 제품별 세계시장 전망>

구 분	'99	'00	증가율
○ 범용부품			
- 다층기판 (MLB & Package)	188억불	226억불	20.0%
- 정밀모터	10.6억개	11.7억개	10.4%
- MLCC	3,200억개	3,700억개	16.3%
- 칩인덕터	405억개	486억개	20.0%
- 칩저항	4,450억개	5,010억개	12.6%
- 전해콘덴서	610억개	640억개	4.9%
○ 이동통신부품			
- SAW 필터	15억개	17억개	15.0%
- 유전체 필터	1.5억개	1.8억개	20.0%
- VCO	3.2억개	4.0억개	25.0%
- TCXO	2.0억개	2.5억개	25.0%
○ 정보가전부품			
- Tuner	2.2억개	2.4억개	9.1%
- DY, FBT	2.4억개	2.6억개	7.5%
- Speaker	12.3억개	13.0억개	5.7%
- Keyboard	1.1억개	1.3억개	18.8%
- SMPS	1.4억개	1.6억개	14.3%
- Digital SVR	720만대	959만대	33.0%
- LCD	100억불	130억불	30.0%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부품 기술>



6. 반도체산업 전망/최 수 이사(현대전자산업)

2000년 반도체시장의 변화를 이끌 변수는 크게 네가지다.

첫째, 반도체 업계의 판도 재편이다. 삼성전자, 현대전자, NEC,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4사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나머지 후발주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업과 전문화시대 도래다. 인텔진영의 독점체제가 인텔과 반원텔 진영의 대결구도로 가면서 반도체업체들의 기술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업체들은 전문화 또는 수평분업체제를 서둘러 구축하려 할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 멀티미디어시대 도래다. IMT2000을 시작으로 통신시장이 변혁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창출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급증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고속화, 대용량화, 통합화의 급진전도 큰 변수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더블데이터 레이트싱크로너스D램(DDR SD램)과 같은 차세대 고속 메모리가, 비 메모리분야에서는 복합반도체(MML) 등이 각광받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 아래 메인프레임과 PC수요로 발전한 반도체 시장을 이제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크가 주도할 전망이다.

다양한 네트워크사업과 유무선의 새로운 네트워크기기 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급속한 확산으로 개인휴대단말기, 휴대형PC, 디지털 TV, 세트톱박스, 디지털카메라, CDMA 등의 분야에서 반도체 신시장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고속D램, 플래시, 고성능 CPU 및 MCU, 통신용 칩셋이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데이터퀘스트에 따르면 데이터프로세싱 분야의 매출 비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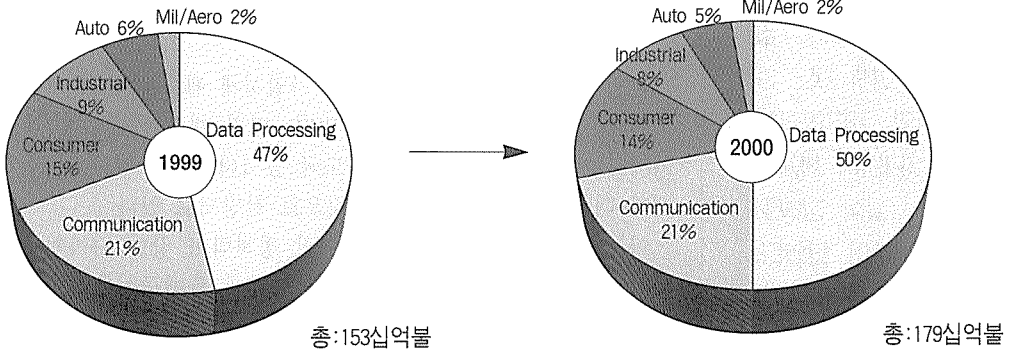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 10억불)

	1998	1999 G/R(%)		2000 G/R(%)		2001 G/R(%)	
반도체 총매출	124	141	14%	164	16%	190	15%
Memory	23	30	29%	36	21%	43	19%
DRAM	14.0	19.1	36%	23.6	24%	29.0	23%
Flash	2.5	3.3	32%	4.1	25%	5.0	23%
SRAM	3.9	4.3	10%	4.5	5%	4.8	7%
기타	2.6	3.1	19%	3.7	19%	3.9	5%
비메모리	83	92	11%	107	16%	123	15%
Micom	39	43	10%	49	14%	56	14%
ASIC & Logic	23	25	9%	30	18%	35	17%
Analog	21	24	14%	28	16%	32	14%
기타	18	19	14%	21	16%	24	15%

<분야별 반도체 수요규모>

(단위 : 10억불)



자료:데이타퀘스트 ('99. 6)

올해 47%에서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D램 공급구조는 빅4 체제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파운드리사업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급상황은 지난 2분기부터 시작된 공급 차질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플래시메모리시장은 디지털화 및 이미지화의 급진전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디지털 카메라, 세트톱박스, 셀룰러폰 등이 전체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도 안정화해 25% 안팎의 고속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S램 시장은 이동전화시장의 확대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 S램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그 감수분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네트워크 수요가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밀도·고속 S램으로 전환되고 시스템 온칩화도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비메모리시장은 오는 2003년까지 15%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신가전과 통신기기가 이를 주도할 것이다.

2000년 반도체 시장은 1640억 달러로 올해 대비 16% 성장하고 D램시장의 성장률은 2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변수도 남아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하락을 비롯해 PC가격 하락, 과잉 신규투자, 인터넷비즈니스 지연 등이다. 그렇지만 일본과 아시아 경기의 회복, 인터넷 신가전제품의 강세, 투자 축소에 따른 가격안정 등으로 반도체 시장 전망은 낙관적이다.

<반도체 시장 성장변수>

